

10/15/17

설교 제목: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1:18-32

- (롬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 (롬 1: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절관주** 창 1:1
-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 (롬 1: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 (롬 1: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 (롬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절관주** 고후 11:31
- (롬 1: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 (롬 1: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 (롬 1: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 (롬 1: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롬 1: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롬 1: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롬 1:32) 그들이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 주 본문 마지막 절이자 바로 로마서 주제입니다.

로마서 주제는 한마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면서 우선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지요.

또한 그 죄성으로 인해 세상 살면서도 자범죄를 짓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없이 모두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한 점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점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 내신 방법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이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실 수 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마땅히 죽음으로써 죄 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죄의 삯은 사망인데 죄를 범한 인간을 죄 값을 치르지 않고 천국으로 가도록 허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말합니다.

(롬 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만 너무 많이 들어온 터인지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에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 1:2) 여호와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와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나 1:3) 여호와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나 1:4)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나 1:5)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나 1:6)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나 1:7) 여호와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 1:8)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진노하시는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진노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내버려두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매를 드는 사람 보았습니까?

자기 자식의 경우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매를 듭니다.

자기 자식을 혼내키고 야단을 치는 것은 그 자식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인생이 잘못될까봐서 노심초사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저 가만히 지켜 보고만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필히 멸망할 수 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든 구원해 볼려고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가던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두려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진노하고 벌하실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치르신 큰 희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멸망할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져야 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롬 1: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란 존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핑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삶을 삽니다.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롬 1: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니까?

허망한 생각에 매여서 헛된 세상 것들을 좇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랑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대신 썩어질 우상을 섬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이런 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내버려 두셨고 그로 인해 인간의 삶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는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

(롬 1: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욱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롬 1: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부끄러운 욱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는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는 화를 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도 해도 안되면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하며 포기하고 내버려두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세상에서 승승장구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한 방법으로 돈과 권력을 얻고 그 돈과 권력을 사용하여 자녀들까지 잘 키워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포기하고 내버려두신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작은 잘못에도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말과 일맥상통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 내버림을 받은 인간의 결국을 보겠습니다.

1.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롬 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

(롬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둔 결과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대신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경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든 이가 더 똑똑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더 똑똑합니까?

저는 세상에서 학식이 높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복을 비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두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동성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롬 1: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롬 1: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며 번성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부의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둔 인간은 그 성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동성을 사랑하는데 쓰게 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런 행동을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의 정점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로 이러한 일에 자신을 내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3.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롬 1:28)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롬 1: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롬 1: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롬 1: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진노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십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고 엄청난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데 나만 자꾸 걸려 속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우리를 향한 진노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으신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